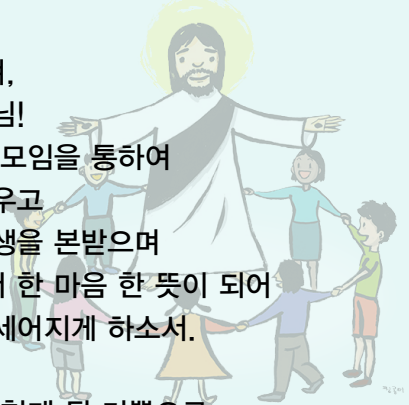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8 | 9 | 제107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소공동체 모임 순서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 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23주일(9월9일)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마르 7,31-37)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05장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치유자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지친 몸과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르코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31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 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32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33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

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반벙어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임을 드러내십니다. 불쌍한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은총의 꽃비를 내립니다. 닫힌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라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화가)-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묵상)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마르 7,32)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기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르 7,34)

나에게 닫힌 곳, 어디가 열리기를 주님께 청하고 싶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사안을 앞둔 국회에서 장외투쟁이나 불출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소속정당의 이익만을 내세우거나 타협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우격다짐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상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께 응답 드려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씀만 이해하고픈 대로 알아듣고, 이웃과 세상에 주님 사랑의 말씀보다 내 안에 가득 찬 불만과 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파타!' 하시며 닫힌 귀를 열고 묶인 혀를 풀어주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 각자의 온 존재를 활짝 열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내 입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 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05장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2절을 노래하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Tip

복음 봉독 후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중 제24주일(9월16일)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마르 8,27-35)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58장 "주의 말씀 듣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사간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진행자] • 한 분이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오마리아수녀의 주일복음그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묵상)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르 8,29)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34)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지고 따라야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가 쓴 편지 >

두 딸을 뒀던 한 여성이 끔찍한 사건을 증언하려고 법정에 섰다. 그녀에게 딸들은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가 적은 일기장에는 두 딸의 출생부터 죽기 전날까지의 따뜻한 일상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살아가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신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아이들도 함께 이 세상을 끝내자고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여섯 살, 네 살 된 두 딸에게 독극물이 든 우유를 먹이고 자신도 먹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은 목숨을 건졌지만, 죄 없는 두 딸만 죽고 말았다.

법정에 나온 그녀는 심장병과 척수염, 류머티즘으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 지친 몸, 그리고 삶의 전부였던 딸들을 잃은 그녀는 아이들을 되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거두고 증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그녀는, 남편은 아이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받을 고통을 막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잘못은 남편의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있다고 법정에서 힘이 되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약한 마음을 가진 남편에게 형을 가볍게 내려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 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58장 “주의 말씀 듣고” 2절을 노래하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Tip •

복음 봉독 후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당 설립 80주년, 가족적이고 소박한 본당

–장재동본당 구역분과장 박주영 도미니카–

장재동본당은 올해 본당 설립 80주년을 맞이한 본당으로, 그 역사는 18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욕지도에서 이사 온 장씨 삼형제 중 한 분이 문산 교우였던 처녀와 혼인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후 입교자들이 증가하여 문산, 진주본당 관할 공소로 지내오다 1938년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당의 오랜 역사에 교우들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도시속의 농촌)으로 인해 젊은이는 멀리 대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우 집이지만 신자 수는 2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본당입니다. 성당 인근의 1,2구역은 구역장이 반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연세들도 많으시지만 농사를 지으며 3대가 어우러져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부모님과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와 손주 며느리 3대가 함께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최근 마을 건너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겨 3, 4구역이 신설되어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성당이 최고야! 우리 신부님이 최고야! 파이팅!'을 외칩니다. 1년에 한번 신부님을 모시고 구역미사도 하면서 구역별로 단합의 기회를 갖습니다. 또 시간이 되는 구역은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성당행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 해 주시는 성모회, 데레사 회원들도 농한기에는 성지순례를 함께 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합니다.

내년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젊은 교우들이 많이 전입오기를 바라며,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신앙을 살아가는 좀 더 활기 넘치는 본당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의 의미

☑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작은 이들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하느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나빔(anawim)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작은 모임이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작은 규모이기에 모든 이가 주체가 되는 공간
서로를 느끼며 하나의 지체가 되어 살아 숨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작은 생명체를 말합니다.

☑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낮아지고 작아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빈 마음의 사람들이 일구어 가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 소공동체의 소(small)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가리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를 품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의 만남
세상에 하늘나라를 여는 교회의 미래를 말합니다.

소공동체는
나를 변화시키는 내 안의 작은 나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안의 작은 세상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만나 온 누리가 하나 되는
우주 속의 작은 우주입니다.

– 「삼위일체 리더십」(통합사목연구소)중에서 –

사목국 일정

■ 신임 소공동체장 연수

-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오전10시~오후4시
-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10,000원(중식 제공)

■ 소공동체장 연수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10월 4일(목) 오후 1시~4시30분	월영성당
창원지구	10월 12일(금) 오후 1시~4시30분	사파동성당
진주지구	10월 18일(목) 오후 1시~4시30분	옥봉동성당
거제지구	10월 25일(목) 오후 1시~4시30분	거제성당

- 참가비 : 1인 5,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9월호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

사목국 알림사항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개편 안내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를 개편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 말씀의 주제를 '시편'으로 하였으나 '주일복음'으로 변경하여, 매월 2째 주일과 3째 주일의 복음을 주제로 하였으며, 각 소공동체에서 원하시는 주일의 복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공동체모임 기록지』 개편 안내

소공동체모임 길잡이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를 개편하게 됨에 따라 '소공동체모임 기록지'가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각 본당의 소공동체모임에서 새로 발행된 '소공동체모임 기록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구 공문을 참조하시어 본당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